상담 이상의 상담!

고민 풀고 신심 쌓고

신행상담실 이용해 보세요

"신행상담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신행 정보도 얻어가세요." 불자들의 사랑방, 고민 해결방 역할을 하고 있는 신행상담실. 사진은 조계사 신행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요즘 사찰을 찾으면 '신행상담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무엇을 하는 곳일까.

신행상담실은 말 그대로 교리공부, 기도, 생활수행, (불자)단체가입 등 신행활동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신행상담'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는 고민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도 신행상담의 범주다. 불자들의 '힘든 살림살이'도 따지고 보면 신행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불자 가정주부 최영희(가명 · 45 · 부산 괴정동)씨. '시어머니 기피증'에 걸려 있던 최씨는 기도나 해볼 심산으로 한 사찰을 찾았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신행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최씨는 "신행상담실에서 조언을 해줘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호전됐다"면서 주위의 다른 불자들에게도 고민이 있을 때 신행상담실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다. 신행상담실이 재가자들의 신앙고민은 물론 생활고민까지 해결하는 '특효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왜 신행상담이 초보 불자는 물론 재가자들에게 중요할까?

직장인 박 과장의 사례를 들어보자.

박형식 과장(가명 · 36 · 서울 종로구 적산동)은 별명이 '투덜이'였다. 박 과장의 눈에는 직장 상사건 부하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그러다 우연히 박 과장은 조계사 신행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박 과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는 상담자의 조언에 귀가 솔깃했다. 곧장 박과장은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100일 후, 다시 신행상담실을 찾은 박 과장의 얼굴에서는 '먹구름'이 걷혀있었다. 신행상담이 박 과장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조계사 신행상담실 윤자명(56) 총무는 "신행상담은 '신행 패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며 "상담 받는 동안 내담자가 생각을 정리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후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곧추세우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신행상담은 주로 △불자로서 겪는 신행의 궁금증 △가족간 갈등 △직장에서 부딪치는 인간관계 등 다양하다. 조계사 신행상담실에서는 내담자와 전화상담을 포함, 하루 약 12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고부갈등, 자녀 학업문제 등을 상담하는 가정고민이 전체의 8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행상담을 어떻게 받아야할까? 전문가들은 "불교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원이 있는 곳에서 신행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조계사와 불광사, 포교사단 상담팀 등과 같이 지속적인 상담원의 교육 · 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담실이 믿을 만하다.

신행상담을 받는 불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자비의 전화'에서 상담봉사를 펼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 이남숙 포교사는 "아직도 불자들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 기도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신행상담에서 제시되는 방법들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상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행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행상담실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간의 연계 및 불교상담 인프라 구축, 출가자들의 참여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4명의 스님들이 신행상담 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 신행상담실의 경우 스님들이 직접 신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신행방법을 제시하면서 사찰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도가 높아진 좋은 사례다.

제천 무량선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무상 스님은 "현재 사이버 신행상담 등의 영역까지 개척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불자들의 참여가 적은 편"이라며 "사찰에서 신행상담실을 전면에 배치, 신도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신행상담은 이곳에서

사찰상담	
능인선원 복지상담실	(02)577-5800
동산반야회 신앙상담실	(02)722-0108
불광사바라밀상담실	(02)422-6065
봉은사 봉은상담실	(02)516-5651
조계사 천수천안의전화	(02)720-7096
관음사 불교상담	(053)474-0108
법왕사 신행상담실	(053)766-3748
원각사 상담실	(062)223-3168
무량선원 상담센터	(043)646-3023
전화상담	
대불련 상담전화	(02)723-5850
마음의전화	(02)747-5787
본각사 나눔의전화	(02)654-0872
자비의전화	(02)737-7378
대구 마음의전화	(053)625-2486
대구 자비의전화	(053)753-9736
맑고향기로운전화	(062)266-0410
포교사단 상담팀	
총괄관리팀	(02)737-7588

교사불자련 올해 화두 '조직 강화'

울산·목포·속초 등 지부 창립 계획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신연섭, 이하 교사불자련)가 '조직 강화'를 화두로 올 한해 사업안을 마련했다.

교사불자련은 2월 6일 김제 금산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교사불자련은 이날 미결성 지회 · 지부 조직지원과 '불자 1분 더 모시기 운동' 전개를 통해 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4월 25일 울산지회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신생 교사불자회 창립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울산에 이어서는 목포 · 속초 · 울진 등에서 잇따라 지부가 창립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사불자련은 2월6일 금산사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열고 '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교사들이 안내하고 진행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등 더욱 더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2007년, 창립 10주년에 맞춰 '(가제) 교사불자회가 걸어온 길' 편람을 제작, 배포할 것을 논의했다. 편람에는 지금까지 교사불자회 각 지부 · 지회가 진행해온 사업과 남긴 발자취를 기록할 예정이다.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안도 내놓았다. 교사불자회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들이 안내하고 진행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곧 개설, 올 상반기 안에 시범운영을 거친 후 상설화 할 예정이다.

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섭(63 · 법명 무아) 회장은 "조직 강화와 동료교사 및 청소년 포교는 우리의 사명"이라며 "교사불자련의 내실화를 통해 올 추진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틈틈이 경전 읽고 욕심 줄여요"

퍼니처마트 차은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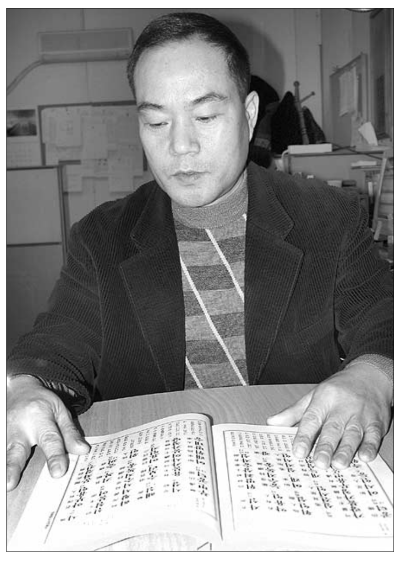
서울 문래동의 한 웨딩홀 지하 주차장. 중고 사무가구들이 두 쪽 벽면에 가득 쌓여있다. 그곳에서 꼼꼼하게 거래처에 배달할 물품을 챙기는 손놀림이 바쁘다. 그 손의 주인공은 퍼니처마트 차은산(52 · 법명 적광 · 사진) 대표.

"IMF 때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제 7년째 접어들었어요. 사업은 꿈도 안 꿨는데, 어느새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네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내가 리더 기질이 있을까' 고심했다는 차대표. 그렇게 겸손을 표하지만 차 대표는 이미 '퍼니처마트'를 작지만 알찬 사업체로 일궈 놨다.

차 대표의 사업에는 기본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정법'에 따른 경영이다. 욕심을 언제나 경계해왔다. 차 대표는 주위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부도난 사업체들을 여러개 봐 왔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월급 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익이 나도 회사 돈을 임의로 가져다 쓰지 않기 위해서다. '욕심' '허식'과 인연을 끊고 나니 차 대표의 얼굴에는 맑은 웃음만 머물러 있게 됐다.

사실 차 대표는 부친이 자신의 삶 터전에 교회를 지을 만큼 독실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다보니 어렸을 때부터 차 대표는 '그리스도 인'이었다. 그러나 20대가 되면서부터 종교의 속박에 염증을 느꼈다. 그 때 정신적 뿌리도 흔들렸고 방황이 시작됐다.



차 대표는 답을 얻고자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부처님 법'을 만났다. 시작은 1998년 겨울, 서울 약사사에서였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도 언제나 바르게 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 생활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사업 시작 8개월 만에 만난 불법. 그 무렵, 4명 남짓 되는 직원들에게 생긴 스트레스도 없어졌다. 다혈질적인 성미가 있어 거짓말 하는 직원들에게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던 것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다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느낄 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아침마다 108배를 하고 1000번 이상 '관세음보살' 등의 정근을 한다는 차 대표. 사무실에서도 틈만 나면 경전을 읽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 속에서 우러난 차분한 목소리와 다정한 말투로 손님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차 대표는 지난해부터 연합포교사단 단장의 길도 걷고 있다. 생활과 마음을 바꿔 차 대표의 삶을 진실하게 만든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다. 불교에 귀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차 대표는 열정과 진심어린 마음은 어디서든 통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늘 환희심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정법을 따르고 부처님 안에서 즐겁게 살겠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1월 5일 부터 □ 입학일 : 2월 27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